



한국소비자원

소비에 가치를! 시장에 신뢰를!

# 보도자료

보도 일시	2026. 4. 24.(금) 12:00 <4. 25.(토) 조간>	배포일	2026. 4. 23.(목)
담당 부서	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	담당자	김소영 팀장(043-880-5421) 조해령 대리(043-880-5425)

## [소비자안전주의보]

## 영유아는 가구 추락사고, 고령자는 바닥재 미끄러짐 사고 주의해야

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)이 202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\*에 접수된 위해정보 85,888건을 분석한 결과, 65세 이상의 고령자 접수 건수가 17,218건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(9.5%)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: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: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, 56개 소방서 등을 포함한 11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·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### □ 생애주기별 안전사고 발생 빈도, 영유아가 4.6건으로 가장 높아

연령이 확인된 63,037건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한 결과, 발생 건수는 고령자(65세 이상)가 27.3%(17,218건), 중년(35~49세)이 21.2%(13,373건), 영유아(0~7세)가 16.3%(10,296건) 순이었다. 하지만 연령별 인구 대비 발생 빈도(인구 천 명당 발생 건수)는 영유아가 4.6건으로 가장 높았고, 고령자가 1.6건으로 나타났다.

### < 생애주기별 안전사고 발생 빈도 >

(인구 천 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)

영유아(0~7세)	어린이(8~12세)	청소년(13~18세)	청년(19~34세)	중년(35~49세)	장년(50~64세)	고령자(65세 이상)
4.6건	1.4건	0.9건	0.7건	1.2건	0.8건	1.6건
						

※ 관련 법률과 통상적인 소비자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연령대를 7단계로 세분화

사고 유형은 영유아의 경우 '침실 가구에서의 추락'이 33.8%(3,476건)에 달했고, 어린이와 청소년은 '자전거로 인한 사고'가 각각 40.3%(1,205건), 52.9%(1,287건)로 잦았다. 고령자는 '바닥재로 인한 미끄러짐·넘어짐 사고'가 82.1%(14,129건)로 대부분을 차지했다.

### < 생애주기별 주요 안전사고 유형 >

영유아	어린이	청소년	청년	중년	장년	고령자
 침실 가구에서 추락	 자전거에서 미끄러짐·넘어짐	 수산물 등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	 주방 가전 불량 및 고장으로 인한 사고	 바닥재 미끄러짐·넘어짐		

### □ 시간을 오래 보내거나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 안전사고 다발

사고 장소는 모든 연령층이 ‘주택’ 34.6%(21,834건), ‘아파트’ 26.8%(16,881건) 등 거주 장소에서의 위해가 가장 많았다. 이 외에 영유아는 ‘어린이집’과 ‘키즈카페’가 359건, 어린이와 청소년은 ‘학교’와 ‘여가·문화시설’이 각각 404건, 275건, 청년과 중년은 ‘카페 및 음식점’과 ‘편의점’이 각각 1,340건, 983건, 장년과 고령자는 ‘종합병원’, ‘목욕탕’에서의 안전사고가 각각 237건, 581건으로 두드러졌다. 체류하는 시간이 길거나 자주 방문하는 곳일수록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
### < 생애주기별 안전사고 다발 장소 >

구분	영유아	어린이	청소년	청년	중년	장년	고령자
거주 장소 외 다발장소	 어린이집      키즈카페	 학교      여가, 문화시설	 카페 및 음식점      편의점	 종합병원      목욕탕			

### □ 영유아는 ‘뇌진탕’, 어린이와 고령자는 ‘골절’ 상대적으로 많아

위해증상은 전 연령대에서 ‘타박상’이 19.6%(12,337건), ‘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’이 12.0%(7,554건), ‘열상(찢어짐)’이 11.5%(7,231건)로 높게 나타났다. 타 연령층 대비 영유아는 ‘뇌진탕’이 1,127건, 어린이와 고령자는 ‘골절’이 각각 394건, 2,766건, 청소년(456건)·청년(2,125건)·중년(1,505건)·장년(1,393건)은 식품 섭취 등으로 인한 복통, 구토 등의 ‘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’이 많았다.

### < 생애주기별 안전사고 다발 증상 >

구분	영유아	어린이	청소년	청년	중년	장년	고령자
타 연령층 대비 다발 증상	 뇌진탕	 골절		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			 골절

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위해정보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▲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, ▲안전 콘텐츠 제작·확산, ▲안전성 검증을 위한 심층 조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
소비자에게는 “영유아와 고령자는 반사신경이 느린 만큼 낙상(추락·미끄러짐·넘어짐)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” 며 “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전거 사고가 많으므로 관련 안전수칙에 대해 보호자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” 고 당부했다.

자세한 분석 결과가 포함된 「2025년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집」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([www.ciss.go.kr](http://www.ciss.go.kr)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하였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'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'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**[위해정보 신고]**

- (홈페이지) [www.ciss.go.kr](http://www.ciss.go.kr) 에서 '위해정보 신고하기' 클릭
- (핫라인) 국번없이 080-900-3500



위해정보 신고

**붙임 1. '2025년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' 결과**

**2. 소비자 주의사항(생애주기별 안전사고 예방 웹 포스터)**



## 1 위해정보 접수 현황

- (전체) 2025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위해정보는 총 85,888건으로 전년(85,639건) 대비 0.3%(249건) 증가함.

### < 연도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>

(단위: 건, %)

구분	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건수		74,000	78,591	79,264	85,639	85,888
전년대비	증감건수	3,978	4,591	673	6,375	249
	증감률	5.7	6.2	0.9	8.0	0.3

## 2 생애주기별 현황

- (생애주기 연령 구분) 생활 습관과 신체적 특성이 유사한 연령대를 7단계(영유아·어린이·청소년·청년·중년·장년·고령자)로 세분화

구분	영유아	어린이	청소년	청년	중년	장년	고령자
연령대	0~7세	8~12세	13~18세	19~34세	35~49세	50~64세	65세 이상

- (생애주기별 위해정보) 접수 건수로는 ‘고령자’가 17,218건(27.3%)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서 ‘중년’ 13,373건(21.2%), ‘영유아’ 10,296건(16.3%) 등의 순이었음.
- (인구 대비 발생 건수)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‘영유아’가 4.6건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서 ‘고령자’ 1.6건, ‘어린이’ 1.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< 생애주기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>

(단위: 건, %)

연령대	2025년		
	건수	비율	인구 대비 발생 빈도* (천 명당 발생 건수)
영유아	10,296	16.3	4.6
어린이	2,988	4.8	1.4
청소년	2,432	3.9	0.9
청년	6,621	10.5	0.7
중년	13,373	21.2	1.2
장년	10,109	16.0	0.8
고령자	17,218	27.3	1.6
총계**	63,037	100.0	1.7

\* (ciss 위해정보 접수 건수) / (2025년 통계청 시군구/성/연령(1세)별 주민등록연앙인구) × 1,000

\*\* 전체 85,888건 중 위해자 연령대를 알 수 없는 22,851건 제외 후 분석

□ 생애주기별 주요 안전사고 유형

- 생애주기별 위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분류 품목·중분류 품목별 다발 위험·위해원인을 분석
- (영유아) ‘침실 가구’에서의 ‘추락’ 사고가 33.8%(3,476건)임.
  - 가구 및 가구 설비(8,356건) 중 침실 가구가 43.6%(3,644건)로 가장 많았고, 그 중 추락이 95.4%(3,476건)를 차지함.
- (어린이) ‘자전거’ 이용 중 ‘미끄러짐·넘어짐’ 사고가 40.3%(1,205건)임.
  - 스포츠 및 취미용품(2,892건) 중 자전거가 47.3%(1,369건)로 가장 많았고, 그 중 미끄러짐·넘어짐이 88.0%(1,205건)를 차지함.
- (청소년) ‘자전거’ 이용 중 ‘미끄러짐·넘어짐’ 사고가 52.9%(1,287건)임.
  - 스포츠 및 취미용품(1,958건) 중 자전거가 73.1%(1,431건)로 가장 많았고, 그 중 미끄러짐·넘어짐이 89.9%(1,287건)를 차지함.
- (청년) ‘외식-기타(수산물 등)’로 인해 ‘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’가 발생한 사고는 9.0%(598건)임.
  - 가공식품(4,502건) 중 외식-기타(수산물 등)가 13.3%(601건)로 가장 많았고, 그 중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가 99.5%(598건)를 차지함.

- (중년) '주방 가전'의 '기타 불량 및 고장'으로 인한 사고가 17.9%(2,395건)임.
  -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(9,512건) 중 주방 가전이 44.0%(4,188건)로 가장 많았고, 그 중 기타 불량 및 고장이 57.2%(2,395건)를 차지함.
- (장년) '주방 가전'의 '기타 불량 및 고장'으로 인한 사고가 12.9%(1,307건)임.
  -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(4,265건) 중 주방 가전이 47.8%(2,040건)로 가장 많았고, 그 중 기타 불량 및 고장이 64.1%(1,307건)를 차지함.
- (고령자) '천장재 및 바닥재'에서의 '미끄러짐·넘어짐' 사고가 82.1%(14,129건)임.
  - 건축/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(15,732건) 중 천장재 및 바닥재가 90.3%(14,212건)로 가장 많았고, 그 중 미끄러짐·넘어짐이 99.4%(14,129건)를 차지함.

< 생애주기별 주요 안전사고 유형 >

(단위: 건, %)

구분	연령대별 건수	1위 위해품목 (대분류)	위해다발 세부 품목 (중분류)		주요 안전사고 유형 건수(비율)
			1위 위험·위해원인 (소분류)		
영유아	10,296건	가구 및 가구 설비 8,356건	침실 가구 3,644건	추락 3,476건	침실 가구에서 추락 3,476(33.8)
어린이	2,988건	스포츠 및 취미용품 2,892건	자전거 1,369건	미끄러짐·넘어짐 1,205건	자전거에서 미끄러짐·넘어짐 1,205(40.3)
청소년	2,432건	스포츠 및 취미용품 1,958건	자전거 1,431건	미끄러짐·넘어짐 1,287건	자전거에서 미끄러짐·넘어짐 1,287(52.9)
청년	6,621건	가공식품 4,502건	외식·기타 (수산물 등) 601건	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598건	수산물 등 섭취로 인한 위험 및 위해 598(9.0)
중년	13,373건	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9,512건	주방 가전 4,188건	기타 불량 및 고장 2,395건	주방 가전 불량 및 고장 2,395(17.9)
장년	10,109건	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4,265건	주방 가전 2,040건	기타 불량 및 고장 1,307건	주방 가전 불량 및 고장 1,307(12.9)
고령자	17,218건	건축/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15,732건	천장재 및 바닥재 14,212건	미끄러짐·넘어짐 14,129건	바닥재 미끄러짐·넘어짐 14,129(82.1)



□ (위해다발장소) 모든 생애주기에서 '주택(상세불명의 주택, 다세대주택 등)' 34.6%(21,834건), '아파트' 26.8%(16,881건) 등 거주 장소에서 위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음.

○ (타 연령층 대비) 영유아는 '어린이집(놀이방)'과 '키즈카페(실내놀이터)', 어린이는 '초등학교'와 '여가, 문화시설', 청소년은 '중학교'와 '여가·문화시설', 청년과 중년은 '카페 및 음식점', '편의점', 장년과 고령자는 '종합병원', '목욕탕' 등이 위해다발장소였음.

< 생애주기별 위해다발장소\* >

영유아	어린이	청소년	청년	중년	장년	고령자
어린이집, 키즈카페	학교, 여가·문화시설	카페 및 음식점, 편의점	종합병원, 목욕탕			

\* 타 연령층 대비 위해가 다발하는 장소

< 생애주기별 상위 10개 위해다발장소(소분류) 현황 >

(단위: 건, %)

순위	영유아 건수(비율)	어린이 건수(비율)	청소년 건수(비율)	청년 건수(비율)	중년 건수(비율)	장년 건수(비율)	고령자 건수(비율)
1	아파트 6,134(59.6)	아파트 889(29.8)	아파트 563(23.1)	아파트 1,838(27.8)	상세불명의 주택 5,184(38.8)	상세불명의 주택 3,125(30.9)	상세불명의 주택 7,052(41.0)
2	상세불명의 주택 1,070(10.4)	상세불명의 장소 394(13.2)	상세불명의 도로 및 인도 431(17.7)	카페 및 음식점 1,272(19.2)	상세불명의 장소 3,358(25.1)	아파트 2,181(21.6)	아파트 3,160(18.4)
3	상세불명의 장소 677(6.6)	상세불명의 도로 및 인도 358(12.0)	상세불명의 장소 312(12.8)	상세불명의 장소 975(14.7)	아파트 2,116(15.8)	상세불명의 장소 1,616(16)	단독주택 1,184(6.9)
4	다세대주택 366(3.6)	초등학교 258(8.6)	카페 및 음식점 225(9.3)	상세불명의 주택 832(12.6)	카페 및 음식점 886(6.6)	카페 및 음식점 826(8.2)	상세불명의 장소 1,019(5.9)
5	상세불명의 도로 및 인도 290(2.8)	상세불명의 주택 163(5.5)	중학교 139(5.7)	상세불명의 도로 및 인도 330(5.0)	상세불명의 도로 및 인도 300(2.2)	상세불명의 도로 및 인도 392(3.9)	다세대주택 666(3.9)
6	카페 및 음식점 214(2.1)	카페 및 음식점 161(5.4)	상세불명의 주택 138(5.7)	다세대주택 313(4.7)	다세대주택 252(1.9)	다세대주택 325(3.2)	카페 및 음식점 579(3.4)
7	어린이집 (놀이방) 207(2.0)	자전거도로 83(2.8)	자전거도로 99(4.1)	스키장 79(1.2)	단독주택 97(0.7)	단독주택 304(3.0)	요양원 531(3.1)
8	키즈카페 (실내놀이터) 152(1.5)	스케이트장 63(2.1)	다세대주택 45(1.9)	단독주택 75(1.1)	편의점 97(0.7)	종합병원 132(1.3)	상세불명의 도로 및 인도 444(2.6)
9	단독주택 90(0.9)	상세불명의 여가, 문화 및 놀이시설 57(1.9)	스케이트장 37(1.5)	편의점 68(1.0)	종합병원 78(0.6)	목욕탕 105(1.0)	목욕탕 329(1.9)
10	공원 90(0.9)	공원 53(1.8)	기타 도로 및 인도 36(1.5)	자전거도로 58(0.9)	기타 주택 61(0.5)	자전거도로 69(0.7)	종합병원 252(1.5)

\* : 주택, 아파트 등 거주 장소

▨ : 타 연령층 대비 위해가 다발하는 특징적인 장소

□ (위해다발증상) ‘타박상’이 19.6%(12,337건), ‘열상(찢어짐)’이 11.5%(7,231건)로 모든 생애주기의 상위 3위 이내 다발증상이었음.

○ (타 연령층 대비) ‘영유아’는 ‘뇌진탕’, ‘어린이’와 ‘고령자’는 ‘골절’, ‘청소년’, ‘청년’, ‘중년’, ‘장년’은 ‘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’ 증상이 다발

< 생애주기별 위해다발증상\* >

영유아	어린이	청소년	청년	중년	장년	고령자
뇌진탕	골절	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				골절

\* 타 연령층 대비 위해가 다발하는 증상

< 생애주기별 상위 10개 위해다발증상(소분류) 현황 >

(단위: 건, %)

순위	영유아 건수(비율)	어린이 건수(비율)	청소년 건수(비율)	청년 건수(비율)	중년 건수(비율)	장년 건수(비율)	고령자 건수(비율)
1	타박상 2,850(27.7)	타박상 588(19.7)	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456(18.8)	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2,125(32.1)	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1,505(11.3)	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1,393(13.8)	타박상 6,038(35.1)
2	열상(찢어짐) 1,942(18.9)	열상(찢어짐) 519(17.4)	타박상 385(15.8)	열상(찢어짐) 605(9.1)	타박상 676(5.1)	타박상 1,342(13.3)	골절 2,766(16.1)
3	뇌진탕 1,127(10.9)	골절 394(13.2)	열상(찢어짐) 374(15.4)	타박상 458(6.9)	열상(찢어짐) 666(5.0)	열상(찢어짐) 962(9.5)	열상(찢어짐) 2,163(12.6)
4	체내 위험 이물질 843(8.2)	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325(10.9)	골절 215(8.8)	두드러기 257(3.9)	골절 355(2.7)	골절 785(7.8)	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1,378(8.0)
5	골절 596(5.8)	뇌진탕 196(6.6)	찰과상 175(7.2)	골절 243(3.7)	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218(1.6)	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 305(3.0)	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 873(5.1)
6	구토 383(3.7)	찰과상 173(5.8)	뇌진탕 146(6.0)	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208(3.1)	두드러기 207(1.5)	두드러기 266(2.6)	출혈 및 혈종 562(3.3)
7	찰과상 379(3.7)	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 116(3.9)	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 101(4.2)	찰과상 167(2.5)	화상-열에 의한 205(1.5)	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216(2.1)	뇌진탕 488(2.8)
8	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372(3.6)	체내 위험 이물질 110(3.7)	두드러기 72(3.0)	구토 156(2.4)	찰과상 155(1.2)	뇌진탕 210(2.1)	찰과상 422(2.5)
9	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 302(2.9)	두드러기 75(2.5)	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53(2.2)	화상-열에 의한 153(2.3)	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 151(1.1)	찰과상 184(1.8)	탈구 227(1.3)
10	두드러기 213(2.1)	구토 66(2.2)	구토 52(2.1)	뇌진탕 143(2.2)	뇌진탕 124(0.9)	출혈 및 혈종 133(1.3)	구토 164(1.0)

\* : 타박상, 열상(찢어짐)

: 타 연령층 대비 특징적인 위해다발증상





## 생애주기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

**영유아**



- ⚠ 영유아가 위험한 가구에 올라가지 않도록 상시 관찰
- ⚠ 침대나 소파 등 가구에 안전 난간 설치하거나 충격 흡수용 바닥 매트 설치

**어린이, 청소년**

**천천히**



- ⚠ 자전거 탈 때는 안전 보호장비 착용!
- ⚠ 내리막길, 골목길에서는 속도 줄이기

**청년**



- ⚠ 식품별 보관 방법과 소비기한 준수
- ⚠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한 음식은 먹지 않기!

**중년, 장년**



- ⚠ 가전제품 내부와 주변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기
- ⚠ 노후화된 가전은 교체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 받기

**고령자**



- ⚠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 설치
- ⚠ 바닥은 항상 건조하게!

**생활 속 안전  
사고 조심!!**







한국소비자원  
Korea Consumer Agency